

# 동남아시아의 구석기문화현황 (東南아시아의 舊石器文化現況)

裴 基 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1. 서 언(序 言)

동남(東南)아시아는 세계(世界)에서 홍적세(洪積世) 고인류연구(古人類研究)의 역사(歷史)가 가장 긴 곳의 하나이지만 고인류(古人類)의 문화(文化)에 관(關)한 연구(研究)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도 인류(人類)의 발상지(發祥地)일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지역(地域)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류진화사(人類進化史)의 과정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동북아(東北亞) 고인류(古人類)들과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現在), 아시아의 남방(南方), 아열대 또는 열대기후하에 존재하였던 고인류(古人類)들과 동북아(東北亞) 온대지역에 살았던 고인류(古人類)와 진화(進化)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關係)가 있었던 가는 해결해야할 형질인류학분야(形質人類學分野)의 숙제이다. 또 다른 면으로써, 이 두 지역간(地域間)의 문화적(文化的)인 차이(差異)에 대해서도 오늘날 구석기분야(舊石器分野)의 새로운 관심(關心)이 야기되고 있다. 1940년대(年代) 모비우스교수는 이 두 지역(地域)을 모두 함께 묶어서 인도이동(印度以東)의 서구구석기문화(西歐舊石器文化)와 대비(對比)시켜 찍개문화권(chopper-chopping tool culture)라고 부른 적이 있으며 이후 이 두 지역간(地域間)의 문화(文化)를 동일시(同一視)하는 경향(傾向)이 있어왔다. 그런데 현재(現在)의 양상(樣相)은 서구(西歐) 아슬리안 양식의 주먹도끼가 석기문화(石器文化) 구성에 극히 적은 비율(比率)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點) 이외(以外)에 동질성(同質性)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實情)이다. 이 글에서는 동남(東南)아시아 지역(地域)에서 현재(現在)까지 알려진 홍적세(洪積世) 초(初), 중기(中期) 즉(卽) 전기(前期) 또는 중기구석기(中期舊石器)로 볼 수 있는 유적과 유물에 대(對)하여 언급(言及)해 보고 현재(現在) 이러한 문화양상(文化樣相)에 대한 설명(說明)을 소개(所介)하여 동북(東北)아시아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와 대비(對比)하여 보자는 것이다. 동남(東南)아시아의 환경과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에 대한 이해는 한반도(韓半島)를 포함한 동북(東北)아시아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이해에 대단히 시사적인 면을 보여줄 것이다.

동남(東南)아시아에 있어서 홍적세연구(洪積世研究)는 19세기(世紀) 후반까지 올라간다. 네덜란드 의사이었던 유진 두보아가 인류조상의 흔적이 동남(東南)아시아 열대(熱帶)에 있으리라는 신념(信念)에서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한 결과(結果) 자바의 트리닐(Triuil)에서 피테칸트로푸스(Pithecanthropus)의 뼈를 찾아내었는데 이것이 최초(最初)의 직립원인(直立原人)(Homo erectus)이다. 오늘날에는 이 트리닐의 직립원인 이외에

도 상기란(Sangiran), 삼퐁마잔(Sampungmacan), 낭둥(Nangdong), 그리고 솔로(Solo) 등(等), 자바중앙(中央)에 있는 솔로강을 따라 있는 지점(地点)들에서 직립원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인골(人骨)이 발견(發見)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바지역(地域)이 오랫동안 고인류(古人類)의 서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바이외의 지역(地域)에서는 이제까지 중부(中部) 홍적세(洪積世)까지 올라가는 고인류(古人類)의 인골(人骨)은 발견(發見)되지 않았다. 자바에서 출토된 인골(人骨)중 상기란유적의 것은 적어도 100만년 이상된 것으로 동(東)아시아지역(地域)에서 가장 오래된 직립원인 화석으로 알려져 있다(Matuu'ura 1982 : Pope 1984와 1985 ; 샤프트노1985). 자바의 직립원인이 어떻게 열대지방(熱帶地方)에서 살게되었던가에 대(對)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가설(假說)에 의(依)해서만이 설명(說明)되고 있다. 왜냐하면 직립원인들이 동(東)아프리카 지역(地域)에서 처음 출현하여 동(東)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동(東)아시아 또는 동남(東南)아시아와 동(東)아프리카 사이의 중간(中間)지대에서 어떠한 고인류(古人類)유적도 발견(發見)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勿論) 동(東)아프리카 이외(以外)의 가장 오래된 유적은 지중해연안(地中海沿岸)의 근동지방(近東地方)에 존재(存在)하고 있기는 하다.

진화(進化)의 과정에서 볼 때 직립원인은 지적(知的)인 능력(能力)으로 볼 때 원래 살고 있었던 아프리카 사바나지역(地域)을 탈출(脫出)하여 다양(多樣)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능력(能力)이 있었음은 현재(現在)까지 연구결과(研究結果)로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불의 사용흔적 그리고 정교한 아슐리안주먹도끼의 제작등(等)으로 볼 때 커진 두뇌 용적과 함께 이들의 적응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직립원인의 늘어난 적응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지역(熱帶雨林地域)에 살게 되었음을 추정(推定)할 수 있으나 현재(現在)까지 이들 또는 이들의 진화선상(進化線上)의 후예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적응하여 생존하였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現在)까지 이미 알려진 자료(資料)들도 모두 불완전(不完全)하거나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우선 어떠한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 자료(資料)들이 이 지역(地域)에서 홍적세(洪積世)의 중부(中部) 또는 상부(上部)의 초기(初期)에 형성(形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보고 이 지역(地域)에 있어서 고인류(古人類)의 생존방식(生存方式)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說明)을 시도(試圖)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동남(東南)아시아 지역(地域)중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버마, 말레이시아등이 언급(言及)될 것이며 석기시대문화(石器時代文化)중 후기구석기(後期舊石器)에 이 지역(地域)에 나타나는 타제석기문화(打製石器文化)인 호아비니안(Hoabihnian)문화(文化)이전(以前)에 해당되는 석기문화(石器文化)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이다.

## 2. 석기문화(石器文化) 출토지점(出土地點)

### A. 자바와 부근 섬들에서 나타난 문화(文化).

자바에서는 일찍부터 고인류화석(古人類化石)이 출토되었던 관계(關係)로 연구(研究)가 집중적(集中的)으로 이루어져서 홍적세퇴적층(洪積世堆積層)에 대한 편년이 잘 이루어져 있다(참조 : Itihara와 1985 : Orchiston와 Siesser 1982). 그러나 유적이 본격적(本格的)인 발굴조사(發掘調査)된 것은 극(極)히 적으며 대부분이 지표(地表)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심지어 현재(現在)까지 알려진 고인류화석(古人類化石)은 모두 지표(地表)에

서 채집(採集)된 것이다. 석기문화(石器文化)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발굴(發掘)에서 채집(採集)된 유물은 극히 소량(小量)에 지나지 않으며, 유적의 지층상황(地層狀況)을 알 수 있는 것이 드물고 또한 연대(年代)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실정(實情)이다. 물론 석기중(石器中)에서 고인류화석(古人類化石)과 관련(關聯)되어서 출토된 것도 없다. 유적이 산재(散在)하고 있는 Solo강변(江邊)이 집중적으로 조사(調查)되었지만 석기(石器)유물의 지질학적(地質學的)인 상황(狀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Bartstra와 Azis 1976 : Bartstra 1985). 박소카(Baksoka) 강변(江邊)에서는 비교적(比較的) 조직적인 시굴조사(試掘調査)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상세한 보고서(報告書)가 공표(公表)된 바 없으며 전혀 석기(石器)유물이 출토되는 지질학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Bartstra 1978). 플로레스(Flores)섬에서는 발굴(發掘)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석기(石器)들이 *Stegodon*의 뼈와 함께 발견되었다. 석기(石器)중에는 가공(加工)한 박편들 외에도 작은 양면가공(加工)의 주먹도끼가 1점(點) 출토(出土)되었다. 이 석기문화(石器文化)를 상기란의 석기(石器)들 또는 파지타(Pacitan)석기문화(石器文化)와 연결시키려는 시도(試圖)는 있으나(Von Koenigswald 1978) 발굴기(發掘器)에서 드러난 석기(石器)의 형태양상(形態樣相)이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상기란이나 파지탄유적의 출토유물이 앞으로 설명(說明)할 바와 같이 모두 지표채집(地表採集)이어서 박편을 가지고서만 문화전통(文化傳統)을 설명(說明)하기는 충분하지 않는 점(點)이 있다. 최근에 2점(點)의 석기(石器)가 표면(表面)에 닳은 흔적이 없이 - 즉(卽) 지표(地表)에서 오래 노출되지 아니한 - 발견되었는데 (Jacob 1978)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의 유물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석기문화(石器文化)로는 파지탄 석기문화(石器文化)와 상기란 석기문화(石器文化)가 현재(現在)까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석기채집품(石器採集品)들 모두가 지표(地表)에서만 채집(採集)된 것이다.

#### (1) 파지탄석기문화(石器文化) (Pacitanian)

자바섬의 박소카강변(江邊)에 있는 파지탄마을 부근에서는 일찍이 1938년부터 Koenigswald와 Tweedie에 의해서 석기(石器)들이 채집(採集)되었다. 그래서 석기문화(石器文化)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이 지역(地域)은 이후에 테일하르트 샤르텡, 드 테라 그리고 모비우스교수에 의해서 조사되었는데 샤르텡은 이 지역(地域)에서 강수면에서 2미터, 십미터 그리고 이십오미터 높이에서 단구(段丘)가 관찰(觀察)된다고 보고(報告)한 바 있다(Teilhard de Chardin 1938). 그런데 석기(石器)들은 강변(江邊)뿐 아니라 강바닥에서도 발견(發見)되었다(van Heekeren 1972 : Bartstra 1975). 일련(一聯)의 조사(調查)에서 채집(採集)된 유물의 일부(一部)는 유럽 박물관(博物館)에서 보관(保管)되어 있으며 또 일부(一部)는 자카르타의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보존(保存)되어 있다. 석기(石器)에 대한 최초(最初)의 종합적(綜合的)인 연구(研究)는 모비우스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약 이천점의 석기유물을 분석한 결과(結果) 아주 미량(微量)의 양면기(兩面器)가 보이기 는 하지만 찍개문화전통(文化傳統)에 속(屬)하는 것으로 보았다(Movius 1944 ; 1948).

석기(石器)들은 대부분 규화목(矽化木)투프, 규화(矽化)된 석회암(石灰巖) 또는 화석목(化石木)들로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대단히 입자(粒子)가 고운 것들이다. 석기(石器)들 중에는 소형(小形)의 박편석기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석기문화(石器文化)는 대형석기위주(大形石器爲主)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표면채집(表面採集)일 경우에 흔히 있는 현상이다. 석기(石器)중에는 찍개, 피크류, 양면가공핵석기, 단면가공석기(單面加工石器), 대형

(大形)급개 그리고 대형(大形)의 박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實際) 자카르타의 국립 박물관(國立博物館)에도 소위 아슬리안주먹도끼형(形)의 양면핵석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관찰(觀察)할 수 있었다. 모비우스교수도 이들의 존재(存在)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론(理論)구성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동일(同一)한 자료(資料)의 관찰(觀察)에서 프랑스로고고학자(考古學者)인 보르드 교수(教授)는 양면가공(兩面加工)주먹도끼의 존재(存在)를 인정(認定)해야한다고 주장(主張)한 바 있다(Bordes 1968).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보관(保管)되어있는 석기(石器)들도 대형석기(大形石器)가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었는데 급개, 조각도, 뚜르개 그리고 침두기 등의 소형석기(小形石器)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석기(石器)들은 모가 이지러져 있어서 지표(地表) 또는 하상(河床)에 오랜동안 노출되어 구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석기(石器)의 모습에서 석기(石器) 채집품중(採集品中)에 상당량이 구석기(舊石器)가 아닌 자스퍼(Jasper)나 칼세드니(Chalcedony) 암석(岩石)이 자연적(自然的)으로 부서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Bartstra 1978 : 개인면담(個人面談) Surin Pookajorn교수(教授)).

파지탄석기문화(石器文化)의 연대는 아직도 논란(論難)이 많다. 원래 모비우스교수는 중부홍적세후반(中部洪積世後半) 또는 상부홍적세초반(上部洪積世初半)으로 추정(推定)한 바 있으나(Movius 1948), 아직까지 이 문화층(文化層)과 관련(關聯)하여 어떠한 절대연대(節對年代)도 출현(出現)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질학적(地質學的)인 해석(解釋)이 엇갈려서 연대(年代)의 추정(推定)에 결론(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近來)에는 모비우스교수의 연대관(年代觀)에 대하여 회의(疑)를 표(表)하는 견해(見解)가 지배적(支配的)이다. 원래 조사자(調査者)의 한 사람이었던 Terra는 석기(石器)가 최상(最上)의 렉석층(礫石層)에서 출토(出土)되었다고 하였는데 (de Terra 1943) 후일 Heekeren은 바닥층인 Notopuro에서 출토된 것일 가능성(可能性)이 있다고 주장(主張)한 바 있었다 (Van Heekeren 1972). 최근(最近)에는 이 석기문화(石器文化)는 지표상(地表上)의 이동(移動)에 의(依)해서 퇴적(堆積)된 층(層)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 시대(時代)가 아니고 여러 시대(時代)에 걸쳐서 누적된 것으로 즉(卽)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에서 상부홍적세(上部洪積世)의 말엽(末葉)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形成)된 것으로 본다고 한 적이 있는데(Bartstra 1978), 최근(最近)의 논문(論文)에서 지질학적(地質學的)인 형성(形成)과정으로 볼 때 도저히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의 고인류(古人類)와는 관계(關係)가 없고 Baksoka강(江)의 지형적(地形的)인 변천(變遷)과정으로 볼 때 상부홍적세말엽(上部洪積世末葉) 또는 충적세(沖積世)동안 형성(形成)된 것으로 결론(結論)짓고 있다 (1984). 이 견해(見解)에 따르면, 물론(勿論) 현재 많은 구석기고고학자(舊石器考古學者)들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석기(舊石器)의 범위(範圍)에 넣지 않고 *Homo wadja - kensis*가 만들었던 자바의 호아비니안(Hoabinhnian)문화(文化)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 (2) 상기란 석기문화(石器文化)(Sangrian Stone Industry)

상기란유적은 자바의 고도(古都) Surakarta (고명(古名):Solo)에서 북(北)쪽으로 약 20 km정도 거리에 있는 유적으로 고인류화석(古人類化石)과 함께 많은 동물(動物)뼈들이 발견(發見)된 유적이다. 현재(現在)까지 모든 석기(石器)들은 지표(地表)에서 채집(採集)되었는데 이 Sangiran유적 일대에서 채집(採集)된 모든 석기(石器)들은 상기란석기문화로 부르고 있다(von Koenigswald 1978). 현재(現在)까지도 석기(石器)들이 어느 층위(層位)에서 출토되고 있는지는 불분명(不分明)하다(Bartstra 1978 : Heekeren 1972 :

von Koenigswald 1978). 이 유적은 원래 1930년대에 von Koenigswald에 의(依)에 확인되었는데 주의(注意)를 끌지 못하다가 Pacitan문화(文化)에 대하여 호모 에렉투스의 제작품(製作品)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이 관심을 끌게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바의 호모 에렉투스의 문화로 추정하게 되었으며(von Koenigswald & Ghosh 1973)이 석기문화(石器文化)가 출토(出土)되었다고 보는 Ngebung마을 부근(附近)에 존재(存在)하는 렉층(礫層)의 추정연대(推定年代) 즉(卽)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를 석기문화(石器文化)의 연대(年代)로 간주(看做)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석기(石器)들은 칼세도니(chlcedony), 아게이트(agate), 자스퍼(Jasper), 규화목(硅化木)(silicified wood)또는 규화석회암(硅化石灰巖)(silicified limestone)등(等)의 좋은 석재(石材)로 제작되었는데 굵개, 작은 양면가공석기(兩面加工石器), 송곳 등(等)의 소형석기(小形石器)가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다. 현재(現在) 대부분의 채집품(採集品)은 자카르타의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고고학연구소(考古學研究所)에 보관(保管)되어 있는데 고고학연구소채집품(考古學研究所採集品)중에는 소형석기(小形石器)들 이외(以外)에도 석핵(石核)또는 모암(母岩)으로 보이는 석기(石器)들도 다수(多數)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근래(近來)에 채집(採集)된 것으로 아직 형태학적(形態學的)인 연구(研究)는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다.

모두가 지표채집(地表採集)이어서 시대(時代)가 아직 불분명(不分明)한데 채집품(採集品)중 앞서 언급한 바 한때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까지 올라갈 가능성(可能性)을 예측(豫測)하고 있으나 현재(現在)까지 in-situ의 상태로 노출된 것은 없다(Bartstra 1985). 플로레스(Flores) 섬에서 발굴(發掘)된 석기유물(石器遺物)과 비교(比較)해 보려는 시도(試圖)가 있었는데(von Koenigswald 1978) 석기(石器)의 기법(技法)이나 형태적(形態的)인 특성(特性)보다도 석기(石器)의 크기에만 의존(依存)한 견해(見解)이어서 타당성에 큰 문제(問題)를 안고 있다. 플로레스섬에서는 석기(石器)들이 stegodon의 뼈와 함께 출토되었다고 주장되었는데 이 석기문화(石器文化)들은 Sangiran이나 Pagitan과 비교(比較)되기도 하지만 연대(年代)에 대(對)해서는 공반(共伴)된 stegodon이 현재(現在)로서는 언제 절감(絶滅)되었는지 불명(不明)하여 연대폭(年代幅)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實情)이다. 석기(石器)가 다수출토(多數出土)된 Ngebung의 렉층(礫層)은 후일 모비우스나 Heekeren등에 의해 다시 조사되어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까지 올라갈 가능성(可能性)은 없으며 이 층(層)속에서 출토(出土)되는 시대가 올라가는 Trinil류(類)의 화석(化石)은 분명 유적훼손에 의(依)해서 들어가게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de Terra 1943).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고고학연구소장(考古學研究所長)인 Soejono나 지질학자(地質學者)인 Sartono등(等)의 학자(學者)들은 이 석기(石器)들이 시대(時代)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oejono 1975 : Sartono 1980). 그런데 Bartstra에 의하면(1985) 석기(石器)들은 Ngebung의 렉층(礫層) 중 최상층(最上層)에서 기원되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석기(石器)들은 이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채집(採集)된 Ngaugdong 석기문화(石器文化)와 함께 상부홍적세(上部洪積世)때 형성(形成)된 것으로 늦은 시기의 호모 에렉투스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바에서 가장 오래된 석기문화(石器文化)로 보고 있는 것이다(Bartsara 1985).

## B. 말레이시아의 탐파니안문화

Kota Tampan은 페락강의 중류(中流)의 단구(段丘)에 위치(位置)하는 유적이다. 1936년

에 최초(最初)로 확인 되었고 1938년에 H. D. Collings에 의해서 보고(報告)되었는데 1948년(年) Movius교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서 자바의 Pacitan문화(文化)나 버마의 Anyathian문화(文化)와 상이(相以)한 Chopper - chopping tool culture중의 하나로 보았다(Movius 1948).

석기(石器)들은 대부분 입자가 거친 규암제 또는 석영질암(石英質岩)에 제작(製作)하였는데 전체적(全體的)인 석기(石器)양상은 대단히 거칠고 불규칙(不規則)한 모양을 띠고 있어서 당시 싱가포르 박물관장(博物館長)이었던 M.Tweedie는 “단지(單只) 전문가(專門家)의 눈에만 석기(石器)로 인지(認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表現)한 바 있다.

박편들이 상당수(相當數) 포함되어 있고 또한 박편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력석기(礫石器)들이 채집(採集)되었다. 모비우스교수는 원시형(原始型)주먹도끼, 찍개, 그리고 석핵(石核)등을 이 문화분류(文化分類)를 사용한 바 있으나 원래 조사자의 한사람인 시브칭 여사는 뿔족끝찍개(pick), 단면기(單面器)(unifacial) 또는 양면가공(兩面加工)의 가로날 주먹도끼(cleaver), 굽개, 주먹도끼 등(等)으로 정교한 형식분류(形式分類)를 시도(試圖)한 바 있다. Harrison은 탐판문화(文化)를 동남아시아의 후기구석기 문화들인 Tabon cave 유적의 석기문화(石器文化)와 보르네오의 Sabah유적의 석기문화와 비교하여 대단히 흡사하다고 보았다. 조정된 석핵(石核)이 전무(全無)하고, 모양에 있어서 규칙성(規則性)이 전혀 결여되어 있으며 타격면이 큰 것이 특징이며 석기(石器)모양의 다양성(性)이 보이지 않고 자르는 날이 석기(石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등(點等)에서 상호(相互) 공통적(共通的)인 문화(文化)임을 주장하였다(Harrison 1975). 그런데 이러한 류의 석기문화(石器文化)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뿐 아니라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석기문화(石器文化)의 연대(年代)에 대(對)해서 아직 논란(論難)이 지속되고 있다. 유물이 비교적(比較的) 높은 해안단구(海岸段丘)에서 발견(發見)되었기 때문에 이른 시기(時期)의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의 간빙기(間氷期)일 것이라고 추정(推定)한 바 있으나(Walker 와 Sieverking 1962)이 퇴적물(堆積物)은 반드시 해안(海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點)이 지적되고 있다(Verstrappen 1975). 새로운 학설(學說)에 따르면, 그와 같은 고지(高地)의 단구(段丘)는 빙하기(氷河期)동안의 수목이 있는 사마나환경에서 형성(形成)된 퇴적물(堆積物)(colluvium)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일(同一)한 양상(樣相)의 퇴적물(堆積物)이 쿠알라룸푸르 부근에서도 발견(發見)된 바 있는데 이 곳에서는 14C 연대측정법에 의해 30,000 - 40,000BP가 얻어진 바 있어서 석기(石器)를 반출(伴出)하고 있는 탐판의 유물도 이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推定)하고 있는 것이다(Harrison 1975). 해리슨은 이 석기문화(石器文化)를 “원(原)호아비니안문화(文化)(Proto-Hoabinhian)”으로 명명(命名)하고 있는데 전체석기문화(全體石器文化)가 자연적(自然的)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可能性)을 배제(排除)하지 않고 있다.

### C. 타일랜드

규암제(珪岩製) 천석(川石)으로 제작(製作)된 대형(大形)의 석기(石器)들이 타일랜드의 서부(西部), 버마와의 국경지대(國境地帶)인 칸차나부리지역(地域)에서 채집(採集)된 바 있다. 석기중(石器中)에는 원시형양면가공(原始型兩面加工)주먹도끼, 단면가공(單面加工)주먹도끼(uniface), 뿔족끝찍개, 찍개, 대형(大型)굽개류, 다각면원구, 그리고 박편석기류가 이 석기문화채집품에서 보이고 있다. 천석(川石)에 단면(單面)으로 가공(加工)화

된 석기(石器)가 압도적(壓倒的)인 다수(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한 쪽 면을 본다면 아프리카의 발달된 아슐리안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반대면(反對面)은 천석(川石)의 자연평면(自然平面)으로 남아 있었다.

이 석기채집품(石器採集品)에 대(對)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연구(研究)가 없다. 이것은 타일랜드에 구석기(舊石器)전문학자(專門學者)가 없는 이유(理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선사고고학적(先史考古學的)인 연구(研究)가 제대로 진행(進行)되어 있지 않다. 하여튼 이 석기문화(石器文化)의 지질학적(地質學的) 상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연대측정(年代測定) 가능(可能)한 어떠한 자료(資料)도 공반(共伴)된 적이 없다. 현재(現在) 방콕의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이나 국립의과대학부설 박물관(博物館)에 소장(所藏)된 석기(石器)들을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 - 대략(大略) 50~60만년(萬年) - 으로 설명(說明)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根據)가 제시(提示)되지 않았다. 이 석기(石器)가 출토(出土)된 칸차나부리지역(地域)에서는 호아비니안계(系)의 동굴(洞窟)유적들이 발굴(發掘)되고 있으나 이전(以前)의 홍적세층(洪積世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석기(石器)의 형태학적(形態學的)인 양상(樣相)으로 볼 때 Sai-Yok유적에서 출토(出土)된 것과 비슷하여 시대(時代)가 홍적세말엽(洪積世末葉)의 석기문화(石器文化)가 될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그런데 이 지역(地域)에서 (단면가공기법(單面加工技法)위주의) 갈색의 천석석기(川石石器)의 전통(傳統)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었던가에 대해 우선(于先)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타일랜드의 북부지방(北部地方)에서 전기구석기(前期舊石器)가 될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3개(個)의 지점(地点)이 발견(發見)되었다. 천석석기(川石石器)가 반매타(Ban Mae Tha)와 반돈문(Ban Don Mun)에서 발견(發見)되었다(Per Sorensen 1936 : Pope 1982 ; Pop *et. al.* 1986). 이 두 유적은 타일랜드의 북부(北部) 람팡(Lampang) 지구(地區)에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곳에서 채집(採集)된 석기(石器)들은 강천석(江川石)에 수매(數枚)의 박편흔이 있는 석기(石器)들로 박편의 경사(傾斜)가 급(急)하고 강천석층(江川石層)에서 채집(採集)되고 있어서 석기(石器)의 판정에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되고 있다. 석기(石器)가 발견(發見)되는 지역(地域)은 두터운 하성퇴적층(河性堆積層)을 홍적세(洪積世)중엽(中葉)에 분류(噴流)된 현무암(玄武岩)이 덮고 있는데 하성퇴적물(河性堆積物)의 표면(表面)은 두께 50cm 내외(內外)의 력층(礫層)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實際) 석기(石器)가 발견(發見)된 지점(地点)은 현무암(玄武岩)이 침식되어 없어진 곳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석기(石器)들이 층(層)속에서 출토(出土)된 것인지 지표(地表)에 존재(存在)하던 것인지는 불분명(不分明)하다. 좌우간(左右間) 이 유적들이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무암(玄武岩)의 연대가  $0.8 \pm 0.3\text{mya}$  그리고  $0.6 \pm 0.2\text{mya}$ 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 유적은 카오 파 남(Kao Pah Nam)유적으로 앞서의 두 지점(地点)보다 약간 남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이 지역(地域)에서도 일부(一部) 최상층(最上層)에 현무암(玄武岩) - 앞서 언급(言及)된 것과 동일(同一)한 층(層)이 덮혀 있으나 유적 부근(附近)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유적(遺蹟)은 석회암지대(石灰巖地帶)에 있다. 동물화석(動物化石)들이 석회암(石灰巖) 속에서 드러났는데 연대(年代)는 현무암분출(玄武岩噴出)보다도 앞서는 중부홍적세이전(中部洪積世以前)으로 보고 있다(Pope 1981). 이 유적에서 7점(點)의 외래석재(外來石材)가 발견(發見)되었는데 조사자(調查者)는 반입석기(搬入石器)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석기(石器)에는 뚜렷한 가공흔(加工痕)이 전혀 없는 단순(單純)히 변형(變形)된 천석편(川

石片)들이어서 앞으로 유적의 형성(形成)과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유적은 이 지역(地域)에서 절감(絶滅)된 동물(動物)의 뼈가 출토(出土)되었을 뿐 아니라 절대연대(節對年代)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이 있어서 앞으로 동남(東南)아시아 고인류연구(古人類研究)에 기대되는 유적이다.

#### D. 버마의 아니야티안문화(文化)

현재(現在)까지 버마에서는 아니야티안문화(文化)가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를 대표(代表)하고 있다. 버마 북부(北部)이라와디강변의 가장 상부(上部)의 단구(段丘)에서 발견(發見)되었다. 크게 2개의 문화(文化)로 구분(區分)되는데 (전기(前期)아니야티안과 후기(後期)아니야티안)되고 있으며 전기는 다시 3개의 단계로 후기는 2개의 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이는 유물의 단구상(段丘上)의 위치에 따라 구분(區分)되었다.

석기(石器)들은 주(主)로 규화목(矽化木)과 규화(矽化)옹회암으로 만들어졌는데 2점(點)의 규암제석기(矽岩製石器)도 채집(採集)된 바 있다. 석기(石器)로 두드러진 모양은 찍개, 양면날찍개, 굽개 그리고 주먹대패 등(等)인데 규화목(矽化木)으로 가공(加工)한 것은 끝에 단면(單面)으로 가공(加工)한 것이 많으며 이 석재(石材)는 나무의 결에 따라 쪼개지는 경향(傾向)이 있어서 석기제작시(石器製作時)에 조형(造型)에 한계(限界)가 있다고 보인다. 규화(矽化)옹회암으로 제작한 석기(石器)들은 훨씬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양면으로 가공(加工)한 석기(石器)도 다수(多數)보인다. 이 석재(石材)는 이라와디강의 천석(川石)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석재(石材)의 성질(性質)이 비교적(比較的) 석기제작(石器製作)이 좋은 편이다. 모비우스교수는 이러한 양질(良質)의 석재(石材)가 존재(存在)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니야티안문화에서 양면가공의 주먹도끼가 전무(全無)하다고 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는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Movius 1944, 1948)

이 문화(文化)는 모비우스에 의(依)하면 전기(前期)가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또한 후기(後期)는 상부홍적세(上部洪積世)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現在)로서는 이러한 견해(見解)에 이견(異見)을 표시(表示)한 논문(論文)이 제시(提示)된 바 없으나 석기(石器)모두가 지표(地表)에서 채집(採集)되었으며 또한 단구(段丘)상의 퇴적층(堆積層)의 해석여하에 따라 시대(時代)는 바뀌어질 가능성(可能性)이 다분히 있다.

#### E. 베트남의 누이 도문화(文化)

누이 도(Nui Do)유적은 하노이 남(南)쪽 170km 지점에 있는데 츠(Chu)강 가까이에 있는 거북형으로 생긴 현무암언덕부근에서 석기(石器)들이 채집(採集)되었다. 1960년대(年代)에 최초의 석기(石器)가 채집(採集)된 이래(以來) 다량(多量)의 석기(石器)가 채집(採集)되었다. 모든 석기(石器)들은 암청색(暗青色)의 입자(粒子)가 아주 고운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석기(石器)들 중에는 주먹도끼, 원시형주먹도끼, 가로날도끼, 찍개, 석핵 그리고 박편들이 포함되어 있다. 채집(採集)된 석기(石器)들 중 80-90%가 박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點)도 특징적(特徵的)이다. 르봐르와기법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박편도 보고(報告)된 바 있다(Boriskovskii 1969 ; Kihn & Luu 1974). 이 석기문화(石器文化)는 모두 지표(地表)에서 채집(採集)된 것으로 연대(年代)를 알 수는 없으나 베트남고고학자(考古學者)들은 이 문화(文化)가 모비우스가 연구한 말레이시아의 탐판



문화와 파지탄문화(文化)의 중간(中間)에 위치(位置)하는 것으로 연대(年代)가 500,000년(年)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Kihn과 Luu 1974 : 89-92). 누이 도문화에서는 클락톤(Clacton)기법에 의한 박편과 석핵(石核)이 다수 존재하는 동시에 르바르와기법과 주먹도끼 또는 원시형주먹도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클락톤기법만이 보이는 코타-탐판의 문화보다는 시대가 내려오는 것이며 르바르와기법이 보이고 또한 주먹도끼가 다량 존재하는 파탄문화보다는 앞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웃한 캄보디아의 캄푸치안유적의— 510,000-690,000년이라는 연대(年代)보다는 오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캄푸치안유적의 연대는 유적층위내에서 발견된 텍타이트의 연대가 위와 같이 나왔던 것이다. 베트남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주장(主張)한 연대관은 앞서의 석기문화(石器文化)의 연대가 현재(現在)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意味)가 없으며 절대(節對)연대 역시 오래된 텍타이트가 층위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可能性)이 더 많은 것이며 캄푸치안유적과의 상관성(相關性)은 더더욱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여간 이 유적은 잘 다듬어진 주먹도끼들이 출토되어 구석기문화연구(舊石器文化研究)에 주목(注目)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의 문화전통(文化傳統)연구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류들도 많은 잔손질이 가(加)해진 것은 아니나 양면으로 가공하였으며 첨두형(尖頭型) 이외(以外)에도 가로날도끼모양도 포함되어 있어서 석기가공기법(石器加工技法)의 특이(特異)함을 보여주고 있다.

### 3. 고고학적(考古學的)인 증거(證據)와 문호(文豪)에 대한 해석과 전망

앞서의 장에서 언급된 문화(文化)들 이외에도 이제까지 고고학적(考古學的)인 논문(論文)에서 언급된 구석기발견물(舊石器發見物)로 필리핀 루손섬에서 발견된 카가얀문화(文化)(Fox 1978). 캄보디아의 캄푸치안석기문화(Kihn과 Luu 1974). 술라웨시의 카벤지석기문화, 자바의 낭동문화(文化)(Koenigswald 1951)등(等)의 석기문화(石器文化)들이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석기문화(石器文化)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발견된 그 어떤 석기문화(石器文化)도 발굴(發掘)에서 유구의 상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대가 제시된 바 없다. 절대연대의 기법이 발달되거나 이 지역의 지질적(地質的)인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기전에 추측(推測)되었던 석기문화의 연대관은 많은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이 지역에서 알려진 대부분의 절대연대는 상부홍적세(上部洪積世)의 중엽(中葉) 즉(卽) 40,000년 BP를 넘지 못한다. 사라와크의 니아(Niah) 동굴유적(Harrison 1970), 팔라완의 타본(Tabon)동굴(Fox 1970), 북부 타일랜드의 스피리트(Spirit)동굴(洞窟)(Gorman 1970), 술라웨시의 리양부릉2 동굴(洞窟)(Glover 1981)등(等)의 절대연대(節對年代)들은 모두 이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모든 중부홍적세석기문화는 지표채집(地表採集)에 의한 것이며 새로운 해석들은 상부홍적세중엽 또는 말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의 지질학적인 또는 유구상황의 해석이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남(東南)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중부홍적세(中部洪積世)에 해당되는 석기문화(石器文化)는 현재(現在)로서는 존재(存在)한다고 보기 어려운 고고학적인 상황이다.

이 지역의 구석기고고학(舊石器考古學)의 가장 큰 숙제는 이 지역에서 고인류(古人類)의 존재(存在)가 이미 백만년전이래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석기문화(石器文化)가 후기구석기시대 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전무(全無)한 실정(實情)인가? 라는 문제일

것이다. 문화유물(文化遺物)의 희귀성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Gorman 1970 ; Hutterer 1977 과 1988 ; Pope 1982와 1985 ; Solheim 1970)이 이곳에서 흔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와 대나무등 썩어 없어질 수 있는 물질(物質)들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나무는 가공(加工)이 쉽고 또한 강(強)한 날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利點)에서 홍적세고인류(洪積世古人類)가 석재(石材)대신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다(Pope 1982 ; 184-91). 실제로 동남(東南)아시아에서는 대나무가 도구나 그릇을 만드는 등의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대나무도구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르거나, 찌르는, 파는, 또는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를 제작한다고 할 때 날을 가공하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나무를 다듬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대나무모델은 불완전(不完全)한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대나무 가공에는 쇠칼, 뼈칼, 또는 석기(石器)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민족지적(民族誌的)인 자료(資料)에서 볼 수 있다. 혹은 불에 굽거나 물에 담구어두는 등의 방법도 있다. 숫돌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기법이어서 홍적세고인류(洪積世古人類)가 이러한 기법을 터득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석기(石器)가 없이 대나무를 도구화하는 방법(方法)을 설명하지 않고는 대나무모델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대나무가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석기(石器)사용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허트리에 의하면(1977년과 1985) 열대우림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양한 식량자원을 찾아서 대단히 이동성(移動性)의 생계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사냥이나 채집에 독특한 장비를 사용하여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기(石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특수한 경우는 나무나 대나무를 가공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석기는 대부분 최소한의 기능을 보유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불규칙(不規則)하게 다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후기구석기 또는 후빙기에 이 지역에 보이는 호아비니안문화의 불규칙(不規則)한 모양들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고인류가 백만년동안 존재해온 지역에서 석기문화(石器文化)의 전무현상(全無現狀)을 충분(充分)히 납득시키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지대에 있어서 석기문화(石器文化)가 희귀한 것은 몇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무나 대나무등의 재료(材料)를 도구에 많이 이용하고 또한 석기(石器)의 이용도(利用度)가 낮았던 탓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오늘날 일부(一部)집단에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호아비니안집단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 지역(地域)환경에서 나타나는 음식물의 특성과 식량(食糧)자원을 찾는 고인류(古人類)의 생존방식(生存方式)상의 특징이 이 지역의 고고학적(考古學的) 문화일측(文化一節) 석기문화(石器文化)의 희귀성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음식물중에서 이 지역에서는 과실(果實)이 식물식량(植物食量)의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다. 열대우림지역에서는 생물총량(生物總量)은 엄청나게 크지마는 인류(人類)가 식료(食料)로 이용(利用)할 수 있는 자원은 극히 제한(制限)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과실(果實)이다. 동물(動物)의 경우에는 이 지역(地域)환경에서는 Stegodon같은 큰 짐승이 있기도 하나 새, 쥐, 벌레, 뱀 등의 아주 작은 짐승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고인류(古人類)의 주요한 식료(食料)대상은 식물자원(植物資源)이 되게 되는데 이 지역(地域)의 직립원인(Homo erectus)의 이빨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Puech 1981) 이빨에는 식물자원에 의한 상처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과실(果實)은 온대지방의 것과 달리 열대·아열대

우림지역의 것은 훨씬 커서 음식물의 채집과 요리에 별다른 도구가 필요가 없다. 단지 날이 있는 무거운 도구가 있으면 족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구의 필요성이 낮은 생존(生存)환경에서 도구의 제작자체가 활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시적(一時的)인 즉흥적(即興的)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最少)의 가공(加工)에 의(依)하고 또한 생존방식(生存方式)이 이동성이 커서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적 형성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족지적(民族誌的)인 관찰에 의하면(Denslow와 Padoch 1988) 열대우림에서는 인류가 깊은 우림(雨林)속에서 사냥·채집으로 생존(生存)하기는 불가능(不可能)하며 대부분이 식료(食料)자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우림지(雨林地)의 변두리에서 살게 되는데 이 변두리에서도 식료자원(食料資源)의 고갈을 우려하여 여러 가지 식료(食料)의 금기(禁忌)와 인구조절(人口調節)의 풍습을 유지하며 일정지역(一定地域)이 집중적(集中的)으로 이용되거나 수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삼림지역주민(森林地域住民)의 이동성생활(生活)의 배경(背景)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이 지역(地域)의 고고학적(考古學的) 증거의 희소성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증명하는데는 앞으로 이 지역내(地域內)에 다양한 환경에서 민족지적(民族誌的)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석기문화자체(石器文化自體)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것과 같이 석기의 출토지층에 대한 조사도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근본적(根本的)인 문제로 이 지역에 있어서 선사고고학(先史考古學)의 미발달(未發達)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지역의 지표조사(地表調査)는 본격적(本格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오늘날까지의 고고학적(考古學的)인 상황은 바뀌어질 가능성(可能性)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한국고고학(韓國考古學)이 인류문화사 복원에 있어서 시도해야할 또 하나의 새로운 지역이며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시도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간의 문화(文化)의 민족주의(民族主義)에 의해서 좌절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Bibilography

(Abbreviations)	MQRSEA	Modern Quaternary Research in Southeast Asia, A.A. Balkema, Rotterdam
	UISPP	Union Internationale des Sciences Prehistorique et Protohistoriques

Bartstra, G.j. 1978. The Patjitanian culture : A preliminary report on new research.

In Early Paleolithic in South and East Asia, ed. by I. Fumiko - S.,  
29 - 36. Mouton, the Hague

1984. Dating the Pacitanian : Some thoughts. In The early  
evolution of man : With special emphasis on Southeast Asia and Africa, ed. by  
P.Andrews and J.L.Franzen, pp.253-258.

1985. Sangiran, the stone implements of Ngebung, and the  
Paleolithic of Java. MQRSEA 9 : 99-113.

Bartstra, G. -J., Basoeki, and B.S. Azis. 1976. Solo river research, 1975, Java,  
Indonesia. MQRSEA2 : 23-36.

Bellwood, Peter. 1985. Prehistory of the Indo - Malaysian Archipalaga Academic  
Press, Orlando.

Boriskovsky, P. I. 1978. Some problems of the Paleolithic of South and  
Southeast Asia. In Early Paleolithic in South and East Asia, ed. by I.  
Fumiko-S.Mouton, the Hague, pp. 87-96.

Bordes, F. 1968. The Old Stone Age(English edition translated by J.E.Anderson)  
McGrowhill Co., N.Y.and Toronto.

de Terra, H. 1943. Pleistocene geology and early man in Java. In Research on  
Early Man in Burma. ed. by H. de Terra & H.L. Movious. Transaction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s. 32(3). Philadelphia.

Denslow, J. S. and C. Padoch. 1988. People of the Tropical Rain Forest.  
University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angeles and London.

Fox, R. B. 1970. The Tabon Caves : Archaeological explorations and excavations

on Palawan Islands, Phillipines. National Museum of Phillipines, Mono.I.Queaon city : New Mercury Printing Press

1978. The Phillipine Paleolithic. In Early Paleolithic in South and East Asia, ed. by I.Fumiko - S.Mouton, the Hague, pp. 59-85.

Ghosh, A.K. 1976. Pleistocene man and his cultures in Central, East, South and Southeast Asia, an appraisal. UISPP IX Congres Colloque VII, 200-36.

Glover, I. C. 1981. Leang Burung 2 ; an Upper Paleolithic rock - shelter in South Sulawesi, Indonesia. MQRSEA6 : 1-38.

Gorman, C. F. 1970. Excavation at Sprit Cave, north Thailand : some interpretations.

Asian Perspectives13: 80-107.

Harrison, T. 1970. The prehistory of Borneo. Asian Perspectives13 : 17-45.

1975. Tampanian : Malaysia's Paleolithic reconsidered. MQRSEA1: 53-70.

1978. Present status and problems for Paleolithic studies in Borneo and Adjacent Islands. In Early Paleolithic in South and East Asia, ed. by I. Fumiko-S.Mouton, the Hague, pp.37-57.

Heider, K.G. 1957 New archaeological discoveris in Kanchanaburi, J. of Siam Society XLV part1 : 61-75

Hutterer, K. L. 1977. Reinterpreting the Southeast Asian Paleolithic. In Sunda and Sahule, ed. by J.Allen, J.Golson and R.Jones, Academic Press, London, pp.31-71.

1985. The Pleistocene archaeology of Southeast Asia in regional context.

MQRSEA9 : 1-23.

1988. The prehistory of the Asian rain forests. In People of the tropical Rain Forest, ed. by J.S. Denslow and C.Padoc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pp.63-72

Itihara, M., D.Kadar and N. Wadanabe. 1985. Concluding remarks. In Quaternary Geology of the Hominid Fossil bearing Formations in Java, Report of the Indonesia - Japanese Joint Research Project CTA -41, 1976-79, ed, by N Wadanabe and D.Kafar. Ge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Bandung,  
pp.367-78

Jacob, T. 1978. New finds and Middle Pleistocene hominids from Indonesia and an examination of their antiquity. In Early Paleolithic in South and East Asia, ed. by I.Fumiko-S.Mouton, the Hague, pp. 13-22

Kinh, Pham van ; Luu Tran Tieu. 1974. The Lower Paleolithic site of Nui Do. Vietnamese Studies47 : 51-106.

Loof-Wissowa, H.H.E. 1980. Report on an archaeological journey 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2: 31-39.

Matsu'ura, S. 1982. A chronological framing for the Sangiran Hominids. Bull. National Science Museum Ser.D.&Tokyo: 1-51.

Movius, H.L.Jr. 1944 Early Man and Pleistocene Stratigraphy in Southern and Eastern Asia, Papers of the Peabody Museum of American Archaeology and Ethnology, Harvard University Vol.XIX No.3. Cambridge, U.S.A.

1948. The Lower Paleolithic cultures of southern and eastern Asia. Transac. Am. Philo. Soc.(N.S.),38 : 329-420.

Orchiston, D.W.and W.G.Siesser. 1982. Chronostratigraphy of the Plio-Pleistocene fossil hominds of Java.MQRSEA7 : 131-149.

Per Sorensen. 1976. Preliminary note on the relative and absolute chronology of two early Paleolithic sites from North Thailand. UISPP IX Congres Colloque VII, 237-51.

Pope, G.C. 1982. Hominid evolu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Ph.D.dissertation in the Dep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5. Taxonomy, dating and paleoenvironment : the paleoecology of the early Far Eastern hominids. MQRSEA9 : 65-80.

Pope, G. C., Sandra Barr, Allan Macdonald, and Supaporn Nakabanlang. 1986.

Earliest radiometrically dated artifacts from Southeast Asia. *Current Anthropology* 27(3) : 275-9.

Puech, P.F. 1983. Tooth wear, diet and the artifacts of Java Man. *Current Anthropology* 24(3) : 381-2.

Sartono, S. 1984. Notes on the Pleistocene stratigraphy of Java, Indonesia. *MQRSEA8* : 129-136.

1985. Dating of the Pleistocene man from Java. *MQRSEA9* : 115-26.

Soejono, R.P. 1975. Jaman prasejarah di Indonesia. In S.Kartodirdjo, M.D. Poesponegoro and N.Notosusanto(eds.), *Sejarah nasional Indonesia* 1,1-310. Jakarta.

Solheim, W.G. 1970. Northern Thailand, Southeast Asia, and world prehistory. *Asian Perspectives* 13 : 145-62

Sondaar, P.Y. 1984. Faunal evolution and the mammalian biostratigraphy of Java. In *the Early Evolution of Man : With Special Emphasis on Southeast Asia and Africa*, ed. by P.Andrews and J.L.Franzen, pp.219-236.

Verstrappen, H. T. 1975. On paleoclimate and landform development in Malaysia. *MQRSEA1* : 3-36.

van Heekeren, H.R. 1972. *The Stone Age of Indonesia*. The Hague : Hjhoff.

von Kenigswald, G.H.R. 1978. Lithic Industries of *Pithecanthropus erectus* of Java. In *Early Paleolithic in South and East Asia*, ed. by I.Fumiko-S.Mouton, the Hague, p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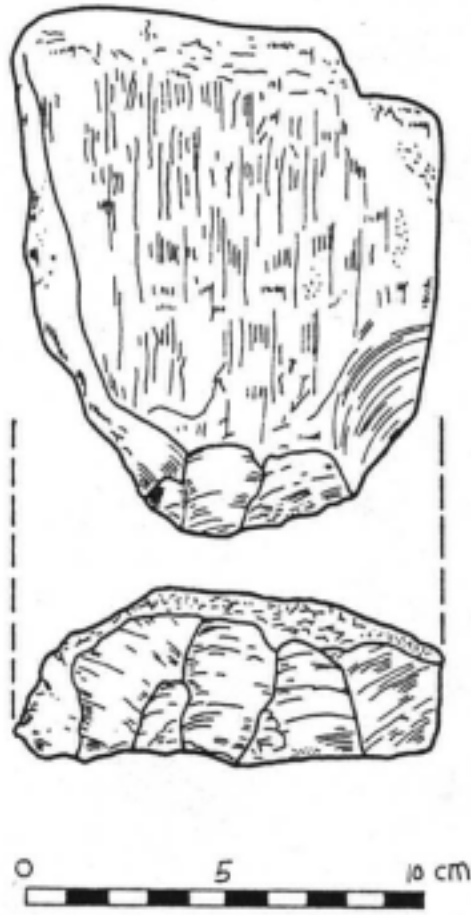
Walker D.and Sieveking A. de G. 1962. The Paleolithic industry of the Kota Tampan, Perak Malaya,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28 : 103-39.



圖 1 東南아시아의 舊石器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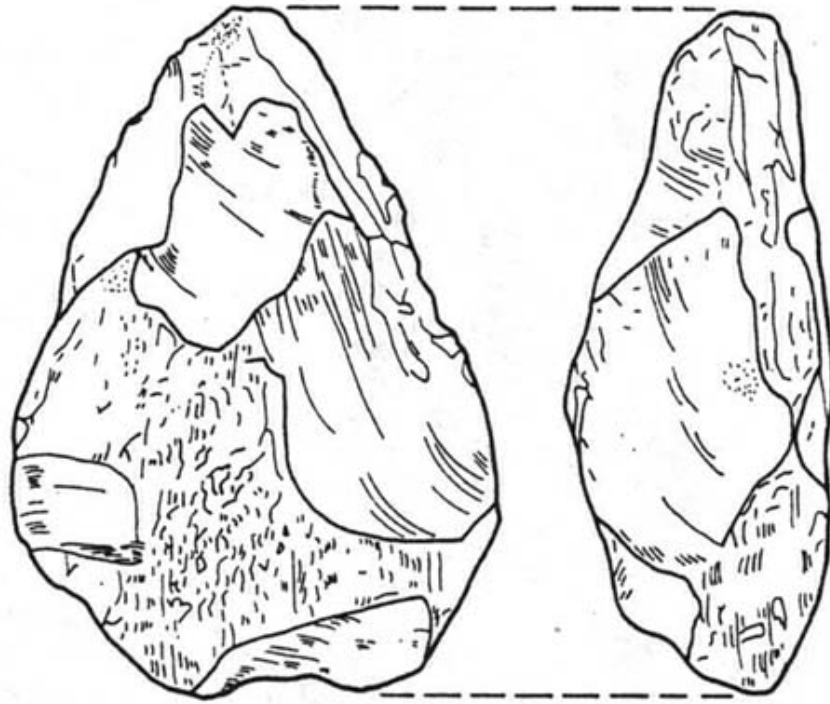
도(圖) 1 동남(東南)아시아의 구석기(舊石器) 유적(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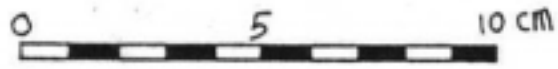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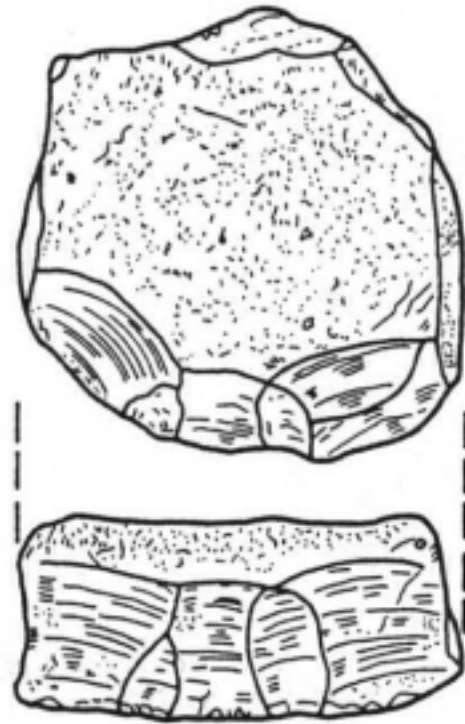
주먹까뀌(규화목)  
(Hand - adge)

도(圖) 2 주먹까뀌(규화목)(Hand-a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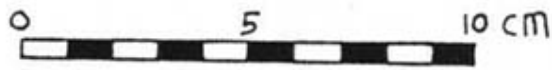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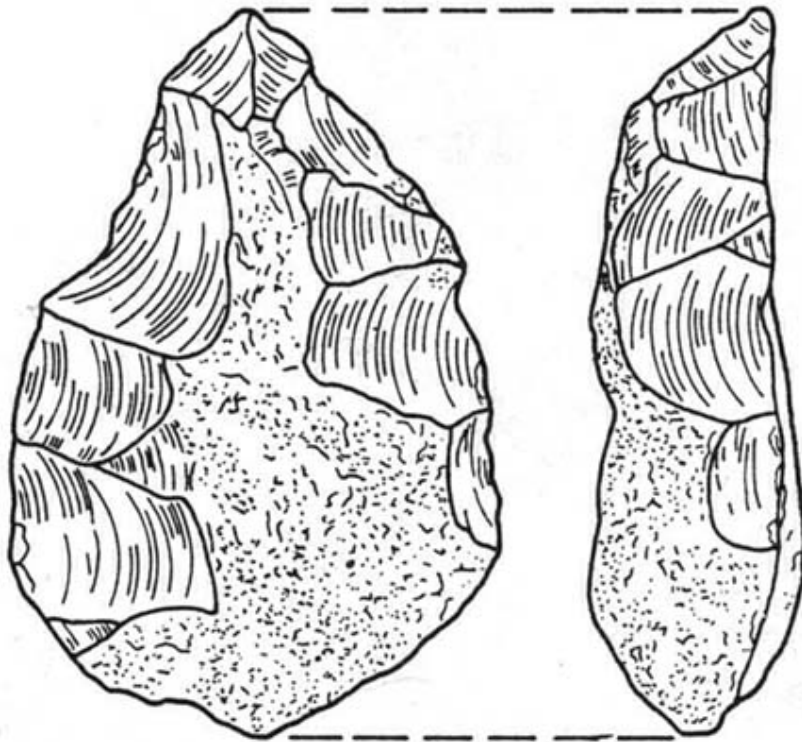
원시형 주먹도끼(규화목)  
(Proto Handaxe)

도(圖) 2 원시형 주먹도끼(규화목)(Proto Handaxe)



주먹가래  
(Hand - ad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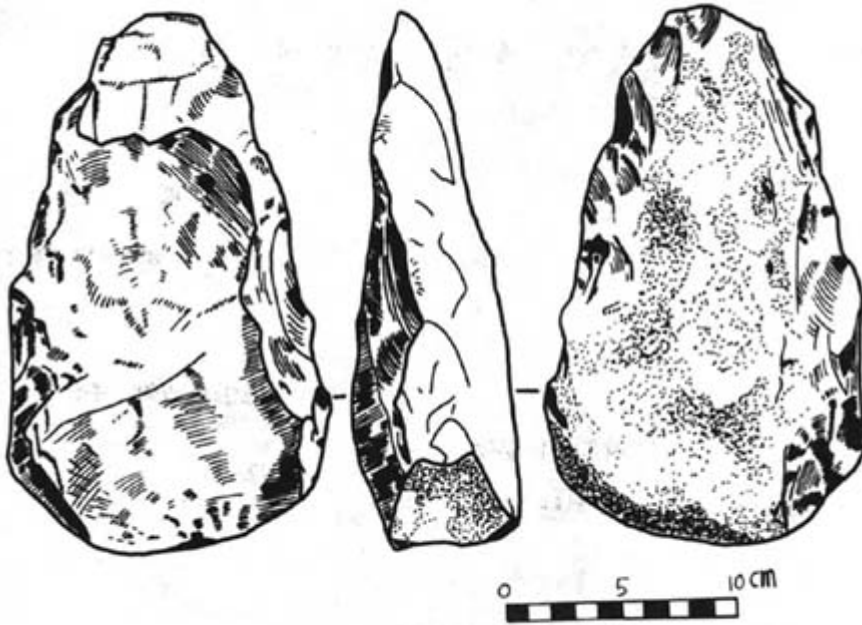
도(圖) 2 주먹가래(Hand-adxe)



원시형 주먹도끼  
(Proto-Handaxe)

도(圖) 2 원시형 주먹도끼(Proto-Handaxe)

圖 3



주먹도끼  
누이 도(Nui Do)유적, 베트남

도(圖) 3 주먹도끼 누이 도(Nui Do)유적, 베트남



주먹도끼  
누이 도(Nui Do)유적,베트남

도(圖) 3 주먹도끼 누이 도(Nui Do)유적, 베트남